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위력한 사상적무기를 마련하시여

조국 광복회 기관지 《3.1월간》 창간 80돐에 즈음하여

총정 200일전후의 승전교과 울려오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3.1월간》 창간 80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주제 25(1936)년 12월 1일에 창간된 조국광복회 기관지 《3.1월간》

혁명투쟁에서 출판물의 위력을 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대로》라고 표현하시었다.

80년전 백두의 밀림에서 피성을 울린 《뜻대로》는 우리 혁명의 장구한 로정에서 무한한 위력을 발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출판물은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의 하나이다. 이 무기의 사정 지리는 무한하다.》

주제 25(1936)년 11월의 마지막 밤은 길어가는데 흰눈덮인 백두의 흰시름을 베쳐가는 일행이 있었다. 그들은 사나운 눈보라와 싸우며 한걸음한걸음 봄의 불길로 전진해갔다.

몇시간전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의 사자발명에서였다.

출판소책임자인 리동백동지는 《3.1월간》 창간을 계기로 이 끝까지 잡지를 가지고 사명사로 떠날 준비를 다그쳤다. 출판소성원들은 의아한 눈길로 이 밤중에 평지도 아닌 협산봉을 어떻게 넘어간다고 하는가, 이 밤은 쉬고 재일 낮에 떠나라고 만류하였다.

이 잡지가 어떤 잡지인가, 사명관동지께서 이 잡지가 발간되기 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통부들도 잘 알지 않는다.

봄을 도하는 뜻은 리동백동지의 진정에 감동된 출판소성원들도 따라 나선 발명이었다.

무릎치는 생는길, 천지를 진동하는 눈보라,

(눈보라, 눈보라야! 너도 백두의 눈보라 아니다. 기쁨의 보고이고 열매의 집대성 찾아가는 우리들을 떠

맡아오. 천만산악 한달음에 주물잡는 나래가 되어오.)

그들이 밤새도록 달려 장백련 폭의 불길에 지리잡은 사명부귀를 짊어 도착한것은 12월 1일 아침해가 떠오를 무렵이었다. 그들이 사명부귀를 짊어 돌아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대로》로 쓰셨다고 하시며 만가이 맞아주시었다.

《3.1월간》 창간호를 꺼내든 출판소책임자는 위대한 수령님께 눈물이 글썽하여 첫 페이지를 읽어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간사를 읽은 리동백동지와 편집성원들에게 정말 수고라고 많았다고 하시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그들을 뜨겁게 축하 해주셨었다.

《3.1월간》 창간호를 창간창간창 편집하는 우리 수령님의 안락은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를 또 하나 마련하신 김일성 동지께 감사드리고 싶었다. 그의 모습을 우리는 전명명들은 《3.1월간》 창간을 위해 바쳐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에 대하여 뜨겁게 물이겨보았다.

조국광복회 기관지의 발행은 그해 봄 조국광복회를 창간하실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과업이었다.

만일 민족통일전선에 각계각층의 대중을 다 방망이처럼 할일대전을 보드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자면 《뜻대로》나 《뜻대로》도 잘 써야 하지만 특히 《뜻대로》가 온을 내게 해야 하였다.

조국광복회는 조선전역과 중국본토,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 통보들이 살고있는 모든 곳에 만일 민족통일전선의 기쁨을 날려주고 하였다.

하여 각지에 공작원들이 자주 파견되었다. 그런데 공작원들의 수효가 제한되어있었다. 그 공간을 메울수 있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바로 혁명적 출판물이었다. 대중의 사랑을 담은 기관지를 잘 만들어서 거기저기에 배포한다 그 한부분부가

관 한명혁명의 공작원을 대신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회 기관지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발간을 위한 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었다.

조국광복회 기관지 《3.1월간》 창간사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 지구에 밀림양을 창설하시고 사자발명에 출판소를 꾸려주시면서 마침내 본격적으로 진행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사명부 비서처 성원들을 기본으로 하여 《3.1월간》 편집부부를 꾸려주시고 주필도 임명하시었다.

출판소책임이 끝나자 그 뜻을 좇아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3.1월간》 창간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을 제시하시었다. 잡지의 표지와 표지 그 내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3.1월간》이라는 제호를 맡아주시면서 《3.1월간》은 일제침략자들에게 거족적으로 대항해나선 조선사람들의 장엄한 독립운동인 3.1인민봉기를 의미한다고, 따라서 《3.1월간》은 민족을 총동원하여 전민항쟁을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3.1월간》 창간을 준비하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중정치로한 잡지형식에 애국애족과 민족대단합에 관한 사상으로 그 내용을 꾸려가도록 하시었다. 《3.1월간》의 태도에 사론성을 주는외에 《우리 민족 조국광복운동의 새 소식》, 《만일 민족혁명전선 각지 승리의 소식》, 《분단》, 《조선의 오늘》, 《국제적 동맹》, 《문예》를 비롯한 고정판들도 실정하도록 하시었다.

창간호에 실린 본질 《3.1운동의 의의와 회고》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많은 글을 직접 쓰시었음뿐 아니라 잡지가 광범한 독자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에 의하여 집필,

편집, 발간되도록 이끄셨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가 넘겨져서 머물고있던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술속에 홀로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있는 한 내내원을 보시었다. 열마나 풀뚫었던 지 내내원은 인기척도 느끼지 못하고 허겁으로 연필심을 적시며 그 심판에서 락수방울처럼 힘들게 떨어지는 글에만 응해있었다. 무슨 글을 쓰는데 그 글은 위대한 수령님께 너더러운 눈흔에 나가서 침투할 선전문이라고 대답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의 글을 보시고 몹시 놀라시었다. 소학교중의 생의 글치고는 매우 활달하고 세련된 글이었다. 써가 있고 주장이 뚜렷하였다.

그의 글을 직접 수정가필하여 《3.1월간》에 실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에 이끌려 평범한 자식 내건도 당당한 필자로 될수 있었다.

간고한 조건에서 《3.1월간》과 같은 출판물을 발간할수 있었던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와 지지에 의거한 리동백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명한 길이었다.

《3.1월간》이 발간되면서부터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참관자들의 대렬과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대렬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한두사람이 《뜻대로》가 이렇듯 온 힘을 내는곳과 《뜻대로》의 임자들조차도 놀랄 지경이였다.

조국광복회의 기관지로 발간된 《3.1월간》은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기관지로서의 사명과 함께 온 나라, 온 민족을 상대로 하는 대중정치로한 잡지로서의 사명을 동시에 담당 수행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안에서 《3.1월간》은 대원들의 투쟁과 생활의 회고였으며 친근한 벗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집필하신 논문들과 조선국내외 소식들에

대한 기사는 읽고 또 읽어서 찾아 지면 몇번이고 다시 몇줄을 써넣곤 하였다.

이렇듯 목자들속에서 애독된 《3.1월간》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반일공중이 애독이하는것, 애독이하는것들을 사상적지향으로 주며 그들을 불굴의 투사로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편집부성원들도 《3.1월간》과 더불어 불굴의 혁명가로 성장한 투사들이었다.

첫손가락에 꼽아야 할 사람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필의 크나큰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신 리동백동지였다.

출판소책임이 마감단계에 이른 주제 25(1936)년 10월말이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동백동지와 출판소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었는데 자신께서는 이제의 땅을 구출하고, 하늘을 천정으로 삼고 사는데 승려되었다는데 대하여 여담삼아 이야기하시었다.

리동백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듣자 씩씩 웃으면서 대답하시었다.

《...백두산의 대장수
그님께서 누우시는 구름은 땅이요, 그분의 천정은 하늘이라,
만고에 하늘땅을 하늘로 삼은 그런 정수 있다는 말 붙은이 있느냐!》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한없이 매혹된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글에 담은 이 사실만으로도 그가 지닌 혁명적수령관이 얼마나 뚜렷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인제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3.1월간》 편집성원들이 가져야 할 품성에 대하여 교시하신적이 있었다.

한강의 풍이, 한의 맥에도 혁명동지의 피가 스미었으니, 한강의 풍이, 한의 맥은 풍자들이 북음을 길고 바꾸어온것이요, 그렇기때문에 중

무들은 한강의 풍이라 할지라도 집약하여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쓰도록 강한 투쟁을 하여야 하오.

리동백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실천적모범으로 받은 전사였다. 그는 나무일사귀만 할 종이도 다 견사해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글씨를 제알같이 막아기며 아주 요긴하게 쓰곤 하였다. 그는 글을 쓸수 있는 백지에 담배를 맡아기우는 사람들을 보면 풍이를 아껴줄 모른다 고 흐뭇게 비관하였다.

리동백동지뿐만아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명으로 받아들인 《3.1월간》 편집성원들의 고결한 세계관이 응축되어있는 일화들은 그 얼마이던가.

《3.1월간》 창간호발간준비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것은 출판기자재의 부족이었다.

그들은 부족한 모든것을 자력으로 해결할것을 결심하였다. 등사인크가 떨어지면 양철로 고갈을 해리우고 붓나뭇집을 때우면서 고갈에 붙은 그물음을 끊어보았다. 그것을 기름에 재웠다가 공장에 만들어낸 등사인크와 섞어 사용하였다. 로바가 못쓰게 될 때는 아교에 충진을 섞어서 끊어가지고 형태로 부어 만들어냈으며 장필이 못쓰게 되면 못바늘을 가지고 단 글이였다.

《3.1월간》을 위해 바친 그들의 피어린 노력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로본으로 내세울만 한것이였고 등사기를 할일혁명전선의 보급고를 증부히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출판물인 《3.1월간》 편집성원들이 가져야 할 품성에 대하여 교시하신적이 있었다.

한강의 풍이, 한의 맥에도 혁명동지의 피가 스미었으니, 한강의 풍이, 한의 맥은 풍자들이 북음을 길고 바꾸어온것이요, 그렇기때문에 중

무들은 한강의 풍이라 할지라도 집약하여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쓰도록 강한 투쟁을 하여야 하오.

리동백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실천적모범으로 받은 전사였다. 그는 나무일사귀만 할 종이도 다 견사해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글씨를 제알같이 막아기며 아주 요긴하게 쓰곤 하였다. 그는 글을 쓸수 있는 백지에 담배를 맡아기우는 사람들을 보면 풍이를 아껴줄 모른다 고 흐뭇게 비관하였다.

리동백동지뿐만아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명으로 받아들인 《3.1월간》 편집성원들의 고결한 세계관이 응축되어있는 일화들은 그 얼마이던가.

《3.1월간》 창간호발간준비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것은 출판기자재의 부족이었다.

그들은 부족한 모든것을 자력으로 해결할것을 결심하였다. 등사인크가 떨어지면 양철로 고갈을 해리우고 붓나뭇집을 때우면서 고갈에 붙은 그물음을 끊어보았다. 그것을 기름에 재웠다가 공장에 만들어낸 등사인크와 섞어 사용하였다. 로바가 못쓰게 될 때는 아교에 충진을 섞어서 끊어가지고 형태로 부어 만들어냈으며 장필이 못쓰게 되면 못바늘을 가지고 단 글이였다.

《3.1월간》을 위해 바친 그들의 피어린 노력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로본으로 내세울만 한것이였고 등사기를 할일혁명전선의 보급고를 증부히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출판물인 《3.1월간》 편집성원들이 가져야 할 품성에 대하여 교시하신적이 있었다.

한강의 풍이, 한의 맥에도 혁명동지의 피가 스미었으니, 한강의 풍이, 한의 맥은 풍자들이 북음을 길고 바꾸어온것이요, 그렇기때문에 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라말라르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 필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바스 각하

나는 팔레스티나인민과 세계현대성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팔레스티나인민에게 뜨거운 진부적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이스라엘의 강점을 광장내고 동부무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창건을 비롯한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들을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강경진 팔레스티나당에서의 이스라엘의 비법적인 유대인정착은확장정책과 인종주의적인 탄압행위를 종식시키고 중동에서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평 양

주제105(2016)년 11월 28일

모리타니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모하메드 울드 아브델아지즈각하

나는 모리타니독립 56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오랜 령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평 양

주제105(2016)년 11월 28일

알바니아공화국 대통령 부야르 니샤니각하

나는 알바니아공화국 국경일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평 양

주제105(2016)년 11월 28일

박봉주 총리

검덕지구의 광산, 기업소 현지료해



박봉주총리 검덕광업연합기업소 현지료해

잊지 못할 첫 세대 문필혁명투사들

항일혁명의 길을 피로써 개척한 혁명적선배들은 북대로의 위력을 펼친 유망투쟁의 열사들이었다.

조선혁명의 승리적전투와 혁명적출판물의 전통을 이룩하는데 기여한 그들을 우리 수령님께서 수심년세월이 흐른 뒤에도 잊지 않고 회고해 《새기어와 더불어》의 잡지마다에서 그 이름을 소중히 떠올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나는 우리의 출판물도 무릇 일꾼들이 매달 하나 달아놓지 못하고 풀이간 혁명적출판물의 제 1세대를 잊지 말아야겠다는 당부하고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추억하신 혁명적출판물의 제 1세대속에는 카를과 오가자시들의 막역 지우었던 김학, 최일선동지들도 있었다.

《볼셰비크》의 주필이었던 김학동지는 원고집필을 할 때면 밤잠을 잊곤 하였다. 그는 《볼셰비크》에 자기가 작사, 작곡한 혁명적인 노래들도 전설해놓았다. 한영이 같은 정령가였던 김학동지는 좀처럼 휴식이라는 것을 몰랐다.

김학동지의 글이 호방하고 격동적이었던 《농우》의 주필이었던 최일선동지의 글은 민족적인 색채가 짙으면서도 지성도가 높고 분석이 예리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잊지 못해 회고하신 최일선동지는 김학동지와 쌍벽을 이루는 재능있는 문장가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추억하신 혁명적출판물의 제 1세대속에는 카를과 오가자시들의 막역 지우었던 김학, 최일선동지들도 있었다.

적을 매일 일기로 적었다. 한두 기 혹은 며칠씩 글은 적는 있었어도 그가 일기를 쓰지 않고 번번 날은 단 하루도 없었으니 비동백동지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스스로 지닌 조선인민혁명군 력사재술가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것을 바치였다.

합성적이고 혁명적이며 박식하였던 《대동명》 리동백동지를 회고하시면서 우리 수령님께서 《3.1월간》의 창간사를 맡기시던 때의 심정을 이렇게 쓰시었다.

수년의 길을 걸어온 그 성실한 문필가에게 창간사를 맡기어 가슴에 맺었던 망국의 실움을 마음껏 떨치고 2천만겨레를 향하여 내놓고싶었던 불같은 말들을 실컷 해치기 해주고싶었다고... 여찌 이렇습니까, 조선인민혁명군 대대기관지

《서광》의 주필이었던 김영국동지도 읽고 재능있는 문필가였다. 김영국동지를 도와 《서광》의 편집과 발간에 적극 참가한 림춘추동지도 열성필사였다.

《중소리의 주필 최경화동지는 또 어떠한가. 그분도 백 잘 그리는 보기 드문 재사분은 그는 《중소리》삼위의 대부분을 직접 그려넣었다.

정치상사실간에는 강사로 나섰고 전두장에서는 선함으로 돌격에 나서곤 하는 선부사 최경화동지를 짓밟과의 싸움에서 있었을 때 훌륭한 전우를 잃은 것이 너무도 애석하기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늘 그를 추모사를 쓰시었다.

리동백, 김영국, 최경화동지와 같은 진정한 필자들이 다 걸을

매났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대의 만일정년문필가였던 《철철》발간을 강위동지에게 위임하시었다.

항일혁명시기의 우리 출판물이 독자대중의 훌륭한 선전자, 교양자로 되었을뿐아니라 영웅적위훈의 고부자로 되고 투쟁의 적극적인 방조자, 생활의 선구한 길동무로 될수 있었던 것은 우리 수령님의 솔하에서 성장한 이런 문필혁명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수령님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첫 세대 문필혁명투사들, 그들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인본인본의 양성에 시었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을 응호고수하는 혁명의 필자를 언제나 불러주고나고 도록 격려해주며,

본사기자 리 글 분

위대한 전통, 불멸의 업적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여

주제 30(1941)년 5월,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혁명적호를 제시하시였으며 6월에는 간백심일영에서 소부대의 정치공작소, 혁명조직원들에게 주체적의무를 든든히 전지하며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행공작소로 벌려대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 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혁명적자각과 자제의 힘으로 인민들을 조국해방을 위한 선성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고 혁명력량을 펼쳐지 준비하며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조석**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공지구 혁명전적지에 꽃들은 자욱을 세기신 주제 90(2001)년 5월이였다.

인공지구혁명전적지는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나오시어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와 정치공작원들의 활동을 몸소 조직지도하시고 국내 인민들을 조국해방을 위한 민항행으로 불러일으키신 뜻

깊은 뜻이다.

혁명전적지의 뜻을 일일이 돌이키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찌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조석이 라는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리시면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존엄하게 승반전되고있기에 조선혁명이

승승장구하는것이라고 표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 인공들에게 혁명전통교양을

혁명의 대가 바꿀수록

몇해전 1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었다.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고 마두산혁명전적지의 곳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이 혁명전통교양을 잘기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고민하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는 사회주의장군전통의 새로운 유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을 보다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시켜나간다는 불멸의 리정로로 되였다.

본사기자 전 광 남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피델 카스트로 루쓰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쿠바공화국대사관을 찾아 조의 표시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쿠바혁명의 최고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쓰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29일 주조 쿠바공화국대사관을 찾아 조의 표시하시었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조선농업근로자총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문화성, 외교단사업총국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피델 카스트로 루쓰동지의 사진앞에 진정되였다.

대사관을 찾은 참가자들은 만

제자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전과 조선과 쿠바 두 나라사회의 친선관계발전에 공헌한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이요 오랜 혁명전우인 피델 카스트로 루쓰동지를 추모하여 무상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의록에 글을 남기었다.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속천청년과수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속천청년과수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으로 희생적인 헌신이라는 데 대하여 심깊게 해설하면서 농장에서 발휘되고있는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특히 초급당위원회의 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같이 하나가 그들이 집행해야 할 주의를 실천에 구현해나가는 특 사상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초급당위원장은 작업의 일환을 리용하여 집행일대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본사기자 전 광 남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쿠바공화국대사관을 찾아 조의 표시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쿠바혁명의 최고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쓰동지를 추모하여 28일과 29일 쿠바공화국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조의록에 글을 남기었다.

【조선중앙통신】

애국의 마음안고 전기철약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통합전력관리체계를 구축한 보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송배전망을 개진보수하고 전압단계를 확충을 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적 줄이며 송전계통을 점차 유연교류송전 계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에 함남도중배전부에서 통합전력관리체계를 전국의 본보기가 되게 구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송배전망을 개진보수하고 전압단계를 확충을 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적 줄이며 송전계통을 점차 유연교류송전 계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에 함남도중배전부에서 통합전력관리체계를 전국의 본보기가 되게 구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송배전망을 개진보수하고 전압단계를 확충을 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적 줄이며 송전계통을 점차 유연교류송전 계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에 함남도중배전부에서 통합전력관리체계를 전국의 본보기가 되게 구축하였다.

당장책임관에는 심장을 내대야 한다

이웃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통합전력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떨쳐나선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전이었다.

어느날 함남비료화학공업소에 찾지 않은 일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전한 도중배전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내감을 마음속 어쩔수 없었다. 지배인 유정학동무는 무시되기 시작한 질박함을 돌아보았다.

30기의 철탑과 수천km의 선, 1만여m의 피뢰선, 1만 2천여개의 애자, 각종 급류류 20여 만개를 교체해야 하는 송전선계통의 정비보강공사는 그야말로 방대하였다.

아름다운 과제를 놓고 모두가

합경남도송배전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리적인 부하분배를 실현하여 전민적인 전력체통을 유지할수 있는 첨단급의 전력관리체계이다.

또한 도시전력망을 현대화하여 많은 전기를 절약할뿐아니라 교차생산조직의 합리성을 보장하게 되었다.

지난 3년간 많은 전기를 절약하는 기적을 창조한 도중배전부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당쟁책사용위정신으로 만장약인 이웃 노동계급의 일본새를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다.

물론 우리에게 통합전력관리 체계에 대한 깊은 파악이나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통합전력관리체계구축은 시대의 요구이며 당의 뜻이다. 이렇다고 불미스런 것들이 산업을 침범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하면 못할 일이 없다.

자강력에 기초한 과학기술의 힘으로

말대한 송배전계통을 정비하고 변전소들의 진흥도 현대적으로

그의 호소는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전력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진하기 위한 대단한 전투목표가 제시되고 그 수행에 나드나도 떨쳐나섰다.

도중배전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전사적인 전투를 벌여 함남비료화학공업소와 2, 8비료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전력공급을 계속하면서 30기의 철탑과 전선 6만 5천m, 현수선자 1만 2천여기와 많은 급류류를 교체하면서 송전계통을 완전히 정비하였다.

또한 송배전부의 일군들은 오래된 변전소들을 현대화할 목표를 세우고 령계적으로 밀고나갔다.

이렇게 애국의 한마음안고 말은 대상과제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우에서 대주기관 바라던 많은 일본새를 보여주고 전력공급체계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완전히 일신시키었다.

그러나 이렇듯 큰일을 해놓은 우리의 주인공들의 가슴속에서 또 어떤 결심과 목표가 설계되고 있는지 아직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배전 군 송 배 전 소 에서

제 힘을 믿고 달라붙어

배전군송배전소에서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여 줄 좋은 전기를 협동농장에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짧은 기간에 군인의 불미한 배전선로들을 교체할 결심을 가다듬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주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지만 배전선로들을 교체하자면 재와 수송기계, 모래 등 제것이 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때문에 자그마한 단원에서 자체의 힘으로 해낼수 있었는가 하고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소장 김명호동무는 무릇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업업이 아니라 하고 싶은데만 장난의 평언을 심장같이 세고 고신약같이 떨쳐나섰다.

책임일군을 비롯한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이 그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고 떠밀어 주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8만여m나 되는 전기선과 전주, 애자 등 필요한 자재들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대오의 앞장서서 단점을 지고 생눈길, 전장길을 헤쳐나가는 일군들의 일본새는 종업원들에게 신심을 안겨주고 전력관리를 담당할 임무의 중요성을 더욱 자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몇

배전군송배전소에서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여 줄 좋은 전기를 협동농장에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짧은 기간에 군인의 불미한 배전선로들을 교체할 결심을 가다듬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주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지만 배전선로들을 교체하자면 재와 수송기계, 모래 등 제것이 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때문에 자그마한 단원에서 자체의 힘으로 해낼수 있었는가 하고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소장 김명호동무는 무릇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업업이 아니라 하고 싶은데만 장난의 평언을 심장같이 세고 고신약같이 떨쳐나섰다.

책임일군을 비롯한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이 그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고 떠밀어 주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8만여m나 되는 전기선과 전주, 애자 등 필요한 자재들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대오의 앞장서서 단점을 지고 생눈길, 전장길을 헤쳐나가는 일군들의 일본새는 종업원들에게 신심을 안겨주고 전력관리를 담당할 임무의 중요성을 더욱 자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몇

결약은 곧 생산이며 애국이다

총정의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신의주기관차대 일군들과 송수전사들이 전기철약사업을 힘있게 벌이면서 연간 수송계획은 110%로, 연간 수송계획은 140%로 넘쳐 수행하는 전례없는 집단적 성과를 일조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 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지난 몇해동안에 기관차대의 일군들과 송수전사들은 자체의 힘으로 기관차중수리차고를 건설하고 수심능력의 전정기중기와 차물선반, 용접기 등 10여가지의 설비들을 새로 갖추어놓았다. 기관차중수리차고에는 분할기중기와 용접기, 각종 선반 등 8종의 설비들을 갖추어놓았다. 그런데 그 설비들을 전부 가동시키지 못한 적어도 손으로 100kW의 전력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보장되는 전기로는 모자랐다.

교차생산조직표를 짜놓고 설비들을 불러왔으나 공급되는 전력이 부족해다가 주꾸수까지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인 비결

원산지 송배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높은 애국심과 주인공 태도를 가지고 한W의 전기라도 극적 절약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송정의 200일전투에 전일한 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두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였다.

전일전투를 높일수 있게 변전소들과 소비자들의 변압기들과 배전선로들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불합리한 송배전계통을 구체적으로 교체하고 송정, 기업소들과 주민세대의 전력공급에 지장이 없게 하면서 송배전설비들을 새롭게 세우게 하였다.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 이런 일도 있었다.

종전에는 신형동을 비롯한 여러 동의 주민세대에 대한 전력공급은 시내의 어느 한 기업소에 있는 변전소를 통하여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쪽 변압기의 용량이 작고 전압이 낮아 주민세대를 물론 기업소의 생산정상화에서 여러가지 애로를 느끼고있었다.

자기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이쪽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짧은 기간에 불합리한 전력공급체계를 개선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인

원산지 송배전소에서

원산지 송배전소에서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투쟁을 벌이였다. 결과 전압단계가 높은 변전소에서 직접 주민세대에 대한 전력공급을 하도록 계통을 구성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훨씬 줄일수 있게 되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서로의 창조적태와 힘을 합치고 내부예비를 탐구하면서 시인의 열망기들의 전압단계를 종전보다

원산지 송배전소에서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투쟁을 벌이였다. 결과 전압단계가 높은 변전소에서 직접 주민세대에 대한 전력공급을 하도록 계통을 구성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훨씬 줄일수 있게 되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서로의 창조적태와 힘을 합치고 내부예비를 탐구하면서 시인의 열망기들의 전압단계를 종전보다

혁명열, 투쟁열로 생을 불태운 일군

요덕군당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병철동무에 대한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집요한 소박하고 수수 겸도 심장의 고통은 언제나 당의 뜻으로 남기고 온몸이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는 일군, 이것이 우리 당이 바라는 선진일군의 모습입니다.》

요덕군당위원회 선전부위원장장이었던 김병철동무는 함북도 북부피해부진전부에서 부원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도 대를 불려온 일군으로서 지난 10월 10일 새벽은 밤보다 우리편을 떠나지 않았다.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과 높은 책임감을 안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일로 한 집결장-집결장-집결장으로 이른바 '집결장'을 열었다. 이 때 그는 '집결장'을 열었다. 이 때 그는 '집결장'을 열었다. 이 때 그는 '집결장'을 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집요한 소박하고 수수 겸도 심장의 고통은 언제나 당의 뜻으로 남기고 온몸이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는 일군, 이것이 우리 당이 바라는 선진일군의 모습입니다.》

요덕군당위원회 선전부위원장장이었던 김병철동무는 함북도 북부피해부진전부에서 부원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도 대를 불려온 일군으로서 지난 10월 10일 새벽은 밤보다 우리편을 떠나지 않았다.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과 높은 책임감을 안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일로 한 집결장-집결장-집결장으로 이른바 '집결장'을 열었다. 이 때 그는 '집결장'을 열었다. 이 때 그는 '집결장'을 열었다.

지방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삼수군에서 지방자재를 적극 활용하여 건설에 널리 리용하고있다.

군의 용력에는 견제도 불수 있는 것이 무전장하게 대강되어 이루어진 울타리라는 것이 밝혀졌다. 울타리는 좋은 건설용 재료로 널리 리용된다. 이것이 파견선로에 전도되었다.

위대 한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높여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높여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높여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시대와 민심을 등진 박근혜 패당에게 차례질것은 파멸뿐이다

반역 <정권> 라도에 청춘의 꿈을 실현하는 길이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대중적인 반 <정부> 투쟁에 청년학생들 특히 중, 고등학교학생들이 적극 열거 나서고 있다.

그들중에서는 <청년들이 나서서 이 땅의 정치를 바꾸자>, <청소년이 주인이다>, <백은 세상을 뒤집어엎는 혁명> 등의 합성이 세차게 유행하고 있다. 집회들에서 무대에 오른 발언자들의 과반수도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은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자가 특혜를 누리려는 것이 박근혜가 능욕 위우면 <살기 좋은 사회>인가, 참혹한 남조선사회의 현실은 근로민중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절규하면서 거기에 피혁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을 다짐하고 있다.

두레전 <세월> 호상사가 일어났을 때 <청년들은 차라리 바다속에 누워있는게 박근혜는 따뜻한 청와대인방에서 잠만 자고 있다>, <박근혜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앞장서자> 라고 하면서 거리에 달려나왔던 그들이 오늘 또다시 투쟁의 데오에 앞장서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민중을 개, 돼지로 여기는 박근혜와 최순실에게서 권력을 빼앗아오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 청년들의 보람찬 투쟁과 행보인 생활은 세상사람들의 헌없는 동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청년들이 오염되고 학락되어 사회의 불치거리로 되고 나라와 민족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을 던져주고 있을 때 위대한 당의 명도를 받는 우리 조국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청년강국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

우리 공화국이아말로 지구상에서 청년강국의 자랑스러운 발상지로 되었다. 사상과 정신이 건전하고 단결되고 열정에 넘친 청년대군의 무한대한 힘이 있어 사

회가 들끓고 눈부시게 약동하는 우리 조국의 전도는 끝없이 밝고 상상하다.

이와는 반대로 반동통치체들에 의해 청춘의 꿈과 희망을 장그림 짓밟힌 남조선청년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아름다운 꿈을 상상하는 모든것이 철저히 질척되고 미래가 사라진 암흑의 남조선사회에서 청년들은 아무런 포부도 없고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로, 모든것을 포기한 <N세대>로 전락되고 있다. 심지어 무슨 일에서나 자신심을 가지지 못하고 무기력한 탓에 그 무엇도 선택하기 꺼려하는 <선택장애현상>이라는 병 아닌 병까지 앓고 있다. 절망에 빠진 청소년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의 길을 택하고 있다.

<청년실업사태>의 수렁에 빠져 청춘의 꿈과 이상을 꽃피우려는 청년 호보적인 생존권마저 장그림 유린당하고 억박하고 암울한 삶을 보내고있는것이 남조선청년들의 비참한 처지이다.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이상, 청소년자살률 세계 제1위인 남조선사회를 저주하는 <잊혀진 희망으로 안영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영하지 않습니다> 라는 슬픈 찬 글들이 인터넷에 차넘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최근 남조선의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초, 중, 고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식상태를 조사한데 의하면 응답자들의 과반수가 남조선의 억압적인 정치체제와 만민민중의 사회현실에 혐오감을 느끼면서 저주받은 땅을 떠나고싶어하였다.

그런데도 박근혜정권은 청년들의 운명이야 어찌된들 상관없이 단역적악정에 미쳐들어가고 있다. 최세의 행렬현이 아이들의 피리지는 구원요청마저 어떤때까지 한창 인생의 꽃망울을 피어야 할 어린 생명들을 겁주름 바다속에 수장시킨

<세월> 호상사와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은 역을데로 역은 남조선정치의 전면모를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이 지옥같은 암흑세상을 뒤집어엎고 자유와 평등의 세계상을 세우는것이아말로 남조선청년들에게 있어서 배움의 열망과 이상, 청춘의 사랑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초미의 과제이다.

들어보면 불의와 독재를 반대하고 정의와 민주를 지향하는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은 반과초민주투쟁의 선봉에 섰다. 외세를 몰아내고 과소독제를 끝장내며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적투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학생들이 서있었다. 4.19인민봉기와 광주인민봉기, 6월인민항쟁에서 수많은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강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운 피를 뿌리며 용감히 싸웠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에게 있어서 오랜 가리결사전이다.

가장스러운 부패 <정권>을 끝장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상에서 자국들의 희망을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로 굳게 단결해야 한다. 박근혜역도의 퇴진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하나의 뜻과 의지로 투쟁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힘은 누구도 당하지 못한다.

부패무능한 박근혜역적정권이 빚어낸 남조선의 험악한 정국흐름과 극도의 위기상황은 청년학생들을 투쟁으로 부르고 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은 청춘의 힘을 떨치며 반역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전민항쟁의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것이다.

이런 속에 피혁역도부여겨려 들은 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 놓고는 현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변나라들과 <정상회담>을 일관하며 추진할것이라는니 뭐니 하고 떠돌았다.

이것이 특대형정치추문사건으로 인한 대외적파문을 가라앉히고 산소양이 된 박근혜역도의 공범자들의 비굴한 사고돌기놀음

<국정추진> 놀음을 뒤받침하며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의 반동외국대결정조를 강화하여 국도의 통치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책에 따른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은병세역도가 판에 박힌 <북핵위협>을 구실로 미국대사들과의 면담을 요청하고서는 소대거리 걸어놓고 말고기라는 격으로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인한 자들의 중대한 처지를 피뎠다고 구차스러운 장광설을 늘어놓은것은 그에 대한 대 표적실증이다.

전대미문의 특대형범죄와 관 현하여 온 남녘땅이 박근혜퇴진항쟁으로 끓어번지고 주변나라

<민족의 재앙, 역사의 오물 박근혜년은 즉각 퇴진하라!> 재일동포들 도쿄에서 집회

박근혜를 단죄규탄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역도퇴진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재일동포들의 집회가 26일 도쿄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전체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통일외지와 민족헌대의 정을 인고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열렬한 지지성원을 보내었다.

그는 박근혜년인 남조선인민들의 정벌을 피하고 더러운 전명을 무지하기 위하여 교환한 슬백으로 마지막박박을 다 하고있지만 4.19인민봉기의 거세한 불길에 비승만역도가 종말을 고한것처럼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년을 역사의 무덤속에 처하고 민중의 힘, 분노한 민심이 어떤것인가를 전세계에 보여줄것이라고 인명 하였다.

성도에 나선 발언자들은 회대의 특색이되고 매국노이며 인간 추방인 박근혜년의 만고피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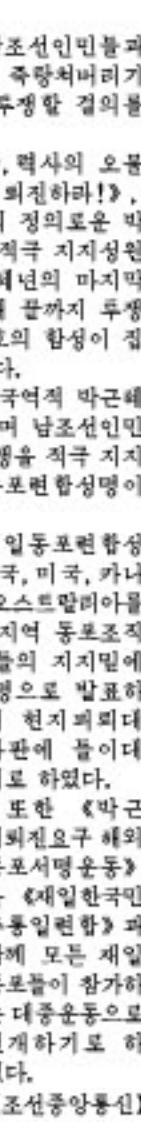
규탄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과 함께 박근혜년을 즉각퇴진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민족의 재앙, 역사의 오물 박근혜년은 즉각 퇴진하라!>,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박근혜년은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년의 마지막 슬픔을 즐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라는 구호의 함성이 집회장에 울려퍼졌다.

집회에서는 폐국역적 박근혜년을 단죄규탄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역도퇴진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재일동포학생들이 채택되었다.

집회에서는 재일동포학생들을 로시아, 중국, 미국, 캐나다, 도이쉴랜드,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해외 각 지역 동포조직들에 보내어 그들의 지지밑에 해외동포학생으로 발포하며 현지피혁사관에 붙이대기로 하였다.

또한 <박근혜퇴진요구 해외동포학생운동본부>를 <재일한국인주동일련합회>과 함께 모든 재일동포들이 참가하는 대중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단 평 버틸수록 개교 망신

박근혜역도가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퇴진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권력의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버티고있다. 가쁜 박근혜가 버틸수록 버틸수록 역도를 폭로하는 귀환한 내막들이 계속 드러나고있는것이다.

박근혜가 최순실의 손학사서 폭주자처럼 날아나며 정치권을 망가뜨리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이번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은 그 내막을 개면 겉수룩 구민네가 불민불민 쫓겨나와 누구나 코를 싸 쥐지 않을수 없다.

나중에는 청와대것들이 남자들의 성욕을 높이는 악물을 대량적으로 구입했는데 그것을 뒤받침한것이 최순실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여론이 더욱 위승승해지고 있다.

바빠있는 청와대제기러들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오히려 그것은 흑을 때려다 붙이는 격이 되고말았다.

청와대청녀에게 그 악이 왜 필요했는지 묻지 않아도 뻔하다는것이 남조선현황의 목소리이다.

이로써 박근혜역도는 그야말로 만사만달에 벌어졌고나선 매춘부들이 되었다. 외신들은 그 사건에 대해 있을 다우어 보도하면서 청와대의 허다리마녀를 아우, 조종하고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해외교포들은 <친구들에게 설명하기가 두끄럽다>, <주변사람들이 절절대면서 조롱하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탄원까지 하고있다.

정치에는 일찌 무식인데다가 폭력에 피가 마르기 전부터 배운것이란 부회당장한것밖에 없는 박근혜는 또 한편 개교망신을 당했다.

그런즉 박근혜역도는 승선없는 버리기놀음으로 망신만 깨게 당하느니 차라리 이제라도 물러나는것이 낫지 않겠는가.

지금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어느 순간에 상가검국 내부에서 당치않은 외교관들이 유행하고있다.

윤병세를 비롯한 피혁역도부여겨려 들은 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 놓고는 현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변나라들과 <정상회담>을 일관하며 추진할것이라는니 뭐니 하고 떠돌았다.

이것이 특대형정치추문사건으로 인한 대외적파문을 가라앉히고 산소양이 된 박근혜역도의 공범자들의 비굴한 사고돌기놀음

이런 속에 피혁역도부여겨려 들은 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 놓고는 현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변나라들과 <정상회담>을 일관하며 추진할것이라는니 뭐니 하고 떠돌았다.

이것이 특대형정치추문사건으로 인한 대외적파문을 가라앉히고 산소양이 된 박근혜역도의 공범자들의 비굴한 사고돌기놀음

공범자들의 비굴한 사고돌기놀음

이런 속에 피혁역도부여겨려 들은 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 놓고는 현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변나라들과 <정상회담>을 일관하며 추진할것이라는니 뭐니 하고 떠돌았다.

이것이 특대형정치추문사건으로 인한 대외적파문을 가라앉히고 산소양이 된 박근혜역도의 공범자들의 비굴한 사고돌기놀음

박근혜 역진을 요구하여 사상 최대규모의 시위

이런 속에 피혁역도부여겨려 들은 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 놓고는 현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변나라들과 <정상회담>을 일관하며 추진할것이라는니 뭐니 하고 떠돌았다.

이것이 특대형정치추문사건으로 인한 대외적파문을 가라앉히고 산소양이 된 박근혜역도의 공범자들의 비굴한 사고돌기놀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여 사상 최대규모의 시위



